

금융개혁 핵심과제 점검

2015. 12. 23.



금융위원회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 금융개혁 : 경쟁과 혁신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

- ◆ 새로운 상품과 혁신적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의 금융편익 증대
-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

2. 핀테크 육성 : 혁신적 서비스로 국민편익과 금융경쟁력 제고



핀테크 규제완화와 생태계 조성을 하였습니다.

핀테크 산업 진입장벽 완화

- ▶ 전자금융업 등록 심사항목 축소(72개→32개)
- ▶ 신규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폐지

규제 전환 (사전 → 사후)

각종 사전규제 철폐

- ▶ 공인인증서, Active X 사용의무 폐지
→ 외국인도 **'천송이 코트'** 구입 가능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內 핀테크 지원센터 구축·운영

- ▶ 법률·행정·기술자문 등 **컨설팅** 제공(254건)

핀테크 생태계 조성

핀테크 인프라 구축 및 자금지원

- ▶ 정부, 금융사, 핀테크 기업간 협의채널 및
핀테크 테스트 베드 구축
- ▶ 자금 지원 : 총 296건, 2,733억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kakaobank K뱅크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개시

- ▶ **점포방문 없는** 거래 가능

* 생체인증(지문 등)을 통한 새로운 인증서비스 출현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계좌이동서비스 시행

- ▶ 접속 61.7, 변경 20.4, 해지 17.2 (만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오픈

- ▶ 총 217개 상품 **한번에 비교** 가입 가능
- * 이용실적 : 약 16만명 방문 (11.30~12.15)

2. 핀테크 육성 : 혁신적 서비스로 국민편익과 금융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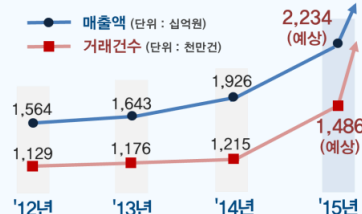
• 스타트업 기업 수

(5월) **44개**
(11월) **약 360여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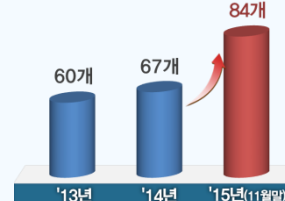
• 산업 종사자

(14년) **24,300명**
(15년 예상) **약 25,600명**

• 전자금융거래 규모



• 전자금융업체 수



핀테크 서비스 만족도 (국민)

74.2%

* 전문가를 통해 실시
(11,2~13)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00명, 이해관계자 106명)



국내 핀테크 산업 평가

🇩🇪 쥐드도이체 자이툰 紙

Ein Land auf Speed

속도가 빠른 나라 - 한국의 핀테크 산업

성공 사례 미흡

✓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
성공사례 출현 미흡

영역 확대 필요

✓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영역까지 **발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핀테크 성과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성공적 안착

간편송금
중금리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16년 中)

IT기업 참여확대 시급
(은행법 개정 지연)

클라우드
펀딩 시행
(16년1월)

온라인 자금조달
창업기회 확대

차별화된
서비스 이용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
(16년2월)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핀테크지원센터 ↔ KOTRA, 특허정보원, 법무법인
- 진출대상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 해외 데모데이* 개최, 해외 투자자 초청 박람회

* 런던, 상하이 등 주요 금융중심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3. 기술금융 정착·확대 : 우수 기술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



기술과 신용을 함께 판단하는 기술금융을 도입하였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 대출·투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

기술금융 추진인프라 구축

기술금융 대출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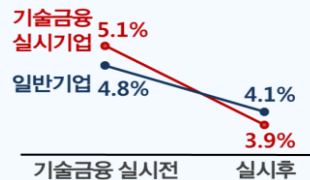
기술금융 투자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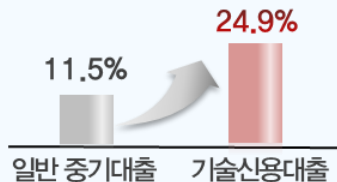
- 우수 기술기업에 기술금융 대출 26.2조원 공급 (15년 中)

▶ (14년) 4.7조원 → (15년 11월말) 26.2조원 (신규기준)

중소기업 금융여건 개선



평균 대출금리 1.08%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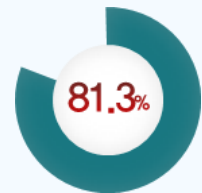
순수 신용대출 비중 증가

중소기업 CEO 11월



“기술금융 이용 지속 희망”

은행 지점장 11월



“기술금융은 5년 이내 정착”

✓ 다만 대출방식이 아닌 투자방식(6,570억원 조성)은 저조

3. 기술금융 정착·확대 : 우수 기술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



창의·혁신·기술 기업에 혈류를 공급하겠습니다.

창업

성장

성숙

• 창업 5년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철폐

▶ 연대보증 부담해소에 따른 창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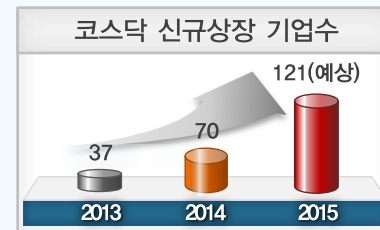
• 클라우드 펀딩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 대출에서 투자로 기술평가기반 투자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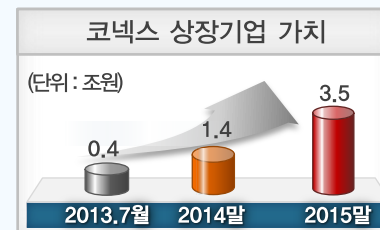
▶ 성장사다리펀드 및 기술평가기반 펀드 조성 지속

* 15년 11월말 기준 성장사다리펀드 4.2조원 조성
기술평가기반 투자펀드 6,570억원 조성

• 코스닥 시장의 모험자본 회수기능 강화



•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확대



• 거래소 구조개편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지연

4. 금융감독 개선 : 보수적 금융관행 타파 → 자율책임확산

금융당국부터 변하겠습니다 : **코치**에서 **심판**으로!

검사·제재 개혁

• 금융회사 자율책임 문화 정착

- ✓ 위규사항 적발 중심
- ✓ 건건이 직원 책임 제재

- ▶ 건전성 진단 중심 검사
- ▶ 현장 중심 / 기관 중심 제재

금융규제 개혁

•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국무총리훈령)

금융관행 개혁

• 국민체감 20대 관행개혁 등

- ▶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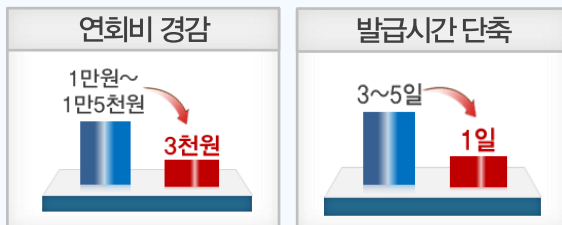
•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현장 애로가 해소되고 국민 편익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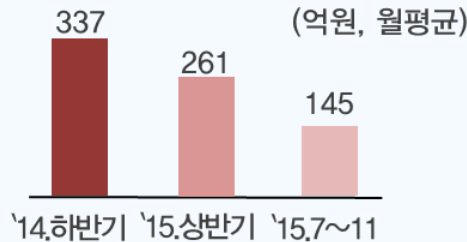
현장의 애로사항 즉각 조치

•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허용



그놈 목소리 공개(217건)

• 금융사기 피해액 50%이상 감소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검사·제재개혁 평가

 충북 과산 장연 신헌 관계자

“권위를 허물고 눈높이를 맞춰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깨우쳐준 것에 감동”

✓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지속적 인식 변화와
금융회사의 적극적 변화와 혁신 필요

4. 금융감독 개선 : 보수적 금융관행 타파 → 자율책임확산

금융회사를 창의적 · 혁신적으로 변화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문화확산



성과중심(채용 · 전문화)

노사 협의

공공기관 선도

규제개혁
자율성 제고



변화와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

내부통제
강화

- 금융회사가 **스스로 준법수준**을 높이도록.
- **준법감시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 격상
- 금융당국 직접감독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 점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운영



시장질서
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회사 경쟁심화 → 시장질서 혼란 및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 우려

시장질서 · 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사후처벌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 강화



신규인력채용

초기 15명 ▶ 1년 후 250명

+235명 증가

본 인력 계획은 본 기업 지출을 초과하는 인력

인력채용으로 예상되는 비율

58%

8%

클라우드 펀딩
기술금융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변화되는 금융 산업

국민

- ◆ **손안**에서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 부자의 꿈을 안고 **만능통장(ISA)**에 저축을 합니다.

기업

- ◆ 좋은 아이디어로 **심시일반** 투자 받아 창업을 합니다.
- ◆ **우수 기술기업**은 보다 쉽게 대출 · 투자 받습니다.

금융회사

- ◆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장과 고객의 눈치**를 봅니다.
- ◆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